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 애착의 관계: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의 매개 효과*

한 기 백†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를 통해 성인의 애착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 지역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은 각각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의 불안애착 행동 방식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만이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회피애착 행동 방식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적 제안과 Bartholomew의 개념적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돌봄,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렇게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모두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냈다. 한편, 자기 존중감 보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회피애착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임상적, 교육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주요어 : 모와의 정서적 유대, 자기 존중감, 타인 신뢰, 성인 애착

*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한기백,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정하상관 711호

E-mail: gibaeg@sogang.ac.kr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안정된 정서적 애착(attachment)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성격 발달과 친밀한 대인관계 방식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은 발달, 성격, 및 사회 심리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연구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Mikulincer & Shaver, 2007). 애착 이론가들 및 연구자들(예, Ainsworth & Bell, 1970; Bowlby, 1969/1982, 1973, 1980)에 따르면 애착이란 아동이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emotional bonding)으로 아동은 신체적 안전과 생존은 물론 생리적,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본능적으로 주 양육자에게 의존한다. 즉,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주 양육자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또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불리는 인지-정서적 틀을 내면 깊이 형성하게 된다. 반면, 주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거나 자신의 욕구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 양육자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Bowlby, 1969/1982; Mikulincer & Shaver, 2007). 아동기에 형성된 이러한 내적 표상들은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성격 발달과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예,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방식의 형성 또는 예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Allen, 2001; Bowlby, 1969/1982, 1988; Schore, 2001).

한편, 아동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정서

적 돌봄과 지지 대신 무관심과 거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에 아동은 낮은 자기 존중감과 타인 불신의 내적 표상을 형성함과 아울러 두 가지 대표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 또는 비활성화(deactivation)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Main, 1990; Mikulincer & Shaver, 2007). 구체적으로, 주 양육자가 아동의 사랑과 관심,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거나 일관성 없이 반응할 때 아동은 거절에 대한 불안으로 주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행동 경향(과잉활성화)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 경향은 Cannon(1939)이 제시한 두 가지 스트레스 대처 반응인 투쟁 대 도피(fight vs. flight) 중에서 투쟁과 유사한데 투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타인의 지지와 인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구는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예, 불안, 분노, 우울)과 깊이 관련된다 고 한다(Allen, 2001; Han, 2010; Mikulincer & Shaver, 2007). 반면, 주 양육자가 아동의 애정과 돌봄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별할 때 아동은 주 양육자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고 혼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행동 방식(비활성화)을 발달시킨다. 이것은 Cannon이 언급한 도피와 유사한데 도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감정을 무시 또는 억압하는 한편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방식(compulsive self-reliance; Bowlby, 1969/1982)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 방식은 과잉활성화와 같이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유발하는 주요인들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Allen, 2001; Mikulincer & Shaver, 2007).

아동기에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 이러한 과잉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행동 전략들은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Brennan과 동료들(Brennan, Clark, & Shaver, 1998)은 애착이론에 기초해 개발된 성인 애착을 측정하는 다양한 자기보고식 척도들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 방식은 크게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라는 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와 보살핌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애착 대상(예, 연인, 배우자)이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자신이 애착대상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애착 대상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회피애착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친밀한 관계 형성을 불편해하고 애착대상과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선호하며 지나치게 자기 의존적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비활성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성인 애착 행동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들(예, '나는 사랑받을 만큼 가치 있어/없어', '사람들은 믿을 만해/믿을 수 없어')이 대인관계 장면에서 친밀감 또는 독립성의 추구라는 행동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안하면서도 회피적인 애착 행동 패턴은 다양한 형태의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Allen, 2001; Han, 2010; Mikulincer & Shaver, 2007; Schore, 2001).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이 아동기에 주 양육

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안정 애착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또는 성인기의 애착 행동 방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Kobak과 Sceery(198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많은 받았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 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적응하는 한편 타인을 더 지지적인 존재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Collins와 Read(199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방식과 자신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표상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한 애착 패턴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불안한 애착 패턴을 보이는 대학생들 보다 높은 자기 가치감을 보이고 외부 세계와 인간 본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Holman과 동료들은 1000쌍이 넘는 대단위의 성인 연인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보살핌과 성인기의 애착 방식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민감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일수록 성인기에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안 또는 회피 애착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Holman, Galbraith, Timmons, Steed, & Tobler, 2009). 한기백(2013)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와 성인기의 애착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애정과 보살핌을 많이 받은 대학생일수록 성인기에 낮은 불안 및 회피 애착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Bowlby(1977, 1980)와 Ainsworth(1982,

1989)가 제안한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관계 방식과 정신적 표상들은 성인기의 애착관계 방식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제한된 수의 연구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여러 형태의 정신적 표상들(예,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합리적 사고, 자기 불일치, 수치심)을 통해 불안, 우울, 섭식장애와 같은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를 보고하였다(김은정, 김진숙, 2010; 김창숙, 2012; 최정아, 이혜은, 2008; 한기백, 2013; Campos, Besser, & Blatt, 2010; Han, 2010; Riggs & Han, 2009;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Coossens, 2005; Wright, Crawford, & Castillo, 2009). 예를 들어,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성인 표집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성인기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와 방임은 자기 패배적인 사고와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행동 패턴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기 우울증은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와 회피 행동들과 관계 깊다고 보고하였다. 김창숙(201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불일치를 통해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를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거절과 방임 및 과보호적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처벌적이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취 간의 괴리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경향이 강한테 이러한 자기 처벌적 수치심과 자기불일치가 강할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Wright와 동료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부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의 결핍, 즉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성인기의 불안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수치심, 자기희생과 같은 내적 도식(schema)을 형성시키는데 성인기의 우울증상은 이러한 내적 도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Wright et al., 2009). 같은 맥락에서 Han(2010)은 아동기에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방임이 자기 및 대인관계 표상들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우울증, 섭식장애, 및 약물남용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각각 조사하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와 방임은 낮은 자기 존중감과 불안 또는 회피 성인애착 방식을 통해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아동기의 부모양육행동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표상들을 통해 성인기의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Bowlby(1973, 1977)가 언급한 두 가지 대표적인 정신적 표상인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성인기의 애착관계 방식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조사한 연구는 본 연구자가 국내외의 주요 문헌조사 데이터베이스들(예, KERIS, EBSCO)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wlby를 비롯한 애착연구자들의 이론적 제안에 근거하여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라는 정신적 표상들을 통해 성인기의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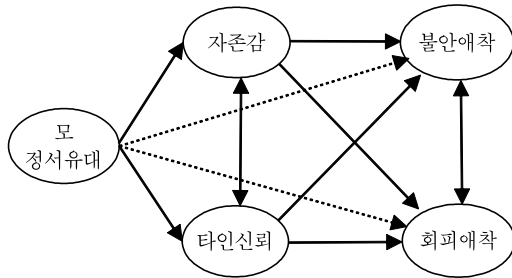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구조모형

매개 경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경로를 확인함에 있어 본 연구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구조모형(완전매개, 부분매개)의 비교를 통해 경험적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우월한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성인기의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을 예측함에 있어 자존감과 타인 신뢰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완전매개, 실선 표시)과 두 표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면서도 모와의 정서적 유대 직접적으로도 불안과 회피 애착을 예측하는 모형(부분매개, 실선 및 점선 표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Bowlby의 이론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삶의 경험과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참여한 미국 남서부의 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총 4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학 또는 교양심리학 수강생들로 지정된 장소에서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1~15명의 소규모 집단

으로 설문에 임하였다. 각 참여자는 설문종결 후에 설문지와 답안지(무기명)를 분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연구자는 참여자의 허락 하에 답안지에 미응답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도하지 않은 미응답 문항이 있는 경우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고 미응답 문항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위와 같은 설문 실시 절차에도 불구하고 7명은 성별 또는 나이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응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역균형 방식(counter-balanced)로 제작되어 배부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자 401명(여자 174명, 68.3%; 남자 127명, 31.7%)의 연령 분포는 만 17세 - 만 44세로 10대가 205명(51.1%), 20대가 185명(46.2%), 30대 이상이 11명(2.7%)으로 평균 연령은 만 20.4세($SD=3.3$)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학년분포는 1학년이 161명(40.1%), 2학년이 88명(21.9%), 3학년이 87명(21.7%), 4학년이 59명(14.7%), 기타 6명(1.5%)이었으며, 민족별 분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78명(19.5%), 유럽계 미국인이 227명(56.6%), 히스패닉계가 54명(13.5%), 아시아계 또는 태평양 섬 주민계가 27명(6.7%), 기타가 15명(3.7%)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인 347명(86.5%)이 미혼으로 응답하였으며 19명(4.7%)이 결혼한 것으로, 31명(7.7%)이 결혼과 유사한 형태의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4명(1%)이 이혼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측

정하기 위해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의 하위 척도인 돌봄(care)을 사용하였다. PBI는 16세 이전의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를 4점 Likert형 척도(1=아주 그랬다, 2=다소 그랬다, 3=다소 그렇지 않았다, 4=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측정하는데 부 및 모에 대해 각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BI는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돌봄(care) 척도는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애정 또는 방임/거절의 정도를 측정하는 12문항(예: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역 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보호(overprotection) 척도는 부모의 과보호/심리적 통제 또는 자율/독립의 정도를 측정하는 13문항(예: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섭하려 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정서적 유대는 일반적으로 과보호보다는 돌봄으로 측정되는 연구경향에 따라 돌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돌봄 척도의 높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적 애정을 많이 받은 정도를 반영하며 낮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무관심과 거절을 많이 경험한 정도를 나타낸다. Parker와 동료들(1979)은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79로, 반분 신뢰도를 .85로 각각 보고하였다. 본 연구 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Russel, Khan과 Altmaier(1998)와 Little, Cunningham, Shahar와 Widaman(2002)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모 돌봄 12문항에 대해 문항꾸러미 만들기(item parcelling)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다. 먼저, 하위척도 별로 주성분 분석추출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서 요인수를 1개로 고정하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정렬된 문항들을 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부터 낮은 문항 순으로 zigzag 방식으로 3개의 꾸러미에 각각 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 돌봄'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는데 꾸러미들의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α)의 범위는 .83~.85였다.

자기 존중감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다. RSES는 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묻는 4점 Likert형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10문항(예,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역 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1979)는 RSES의 문항내적 합치도를 .89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85로 각각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위의 PBI 돌봄 척도에 실시한 문항꾸러미 구성 방식에 따라 잠재변인 '자기 존중감'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는데 꾸러미들의 문항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75~.76이었다.

타인 신뢰성

일상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을 측정

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 Personality Inventory-Revised(NEO-PI-R)의 친근성(Agreeableness) 요인의 하위 척도인 신뢰성(Trust)을 사용하였다. NEO-PI-R의 신뢰성 척도는 대인관계 전반에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정도를 묻는 5점 Likert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8문항(예,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정직하고 선하며 좋은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고 믿는 성향이 강한 반면, 점수가 낮을수록 사람들을 의심하고 정직하지 않다고 믿는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Goldberg(1999)와 Rossier, Stadelhofen과 Berthoud(2004)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NEO-PI-R의 문항내적 합치도를 각각 .84와 .8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 합치도는 .86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위의 PBI 돌봄 척도에서 실시한 문항꾸러미 구성 방식에 따라 잠재변인 '타인 신뢰성'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는데 문항 꾸러미들의 문항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65~.71이었다.

성인 애착

성인기에 행하는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한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ECR)을 사용하였다. ECR은 성인들이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두 가지 애착 행동 방식인 불안(anxiety)애착 18문항(예, '나는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까봐 걱정 한다')과 회피(avoidance)애착 18문항(예, '나는 연인에

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은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 연인)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회피애착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ECR은 7점 Likert형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연구들(예, Brennan et al., 1998; Mikulincer, Dolve, & Shaver, 2004; Brennan, Shaver, & Clark, 2000)이 높은 문항내적 합치도($\alpha=.90$ 에 가깝거나 그 이상)와 적절한 검사-재검사 신뢰도(.50-.75)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에서의 문항내적 합치도는 불안 애착이 .94, 회피 애착이 .91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위의 PBI 돌봄 척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은 문항 꾸러미 만들기 방식을 사용하여 잠재변인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에 대해 각각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불안 애착 꾸러미들의 문항내적합치도의 범위는 .76~.77이고 회피 애착 꾸러미들의 범위는 .82~.84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과 MPlus 6.12로 분석하였는데 먼저, 관찰변인들의 특성(평균, 표준편차, 정상 분포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자료탐색을 실시하였고 관찰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두 변인 상관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실행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문항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총 5개의 잠재변인 모두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가설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모형 검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요구되는 모형적합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론 평정법은 Satorra-Bentler chi-square라고도 불리는 MLM이다. MLM은 다양한 형태의 분산 및 공변량 구조를 지닌 자료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평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료가 비정상분포일 경우에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정한다는 장점이 있다(Muthen & Muthen, 2010; Byrne, 2006, 2012).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LM\chi^2$,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및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수용되어온 모형 적합도의 기준은 χ^2/df 는 2~5보다 작고 CFI와 TLI는 .90보다 크고 RMSEA는 .08 또는 .10보다 작은 값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Hu와 Bentler(1999)는 Monte Carlo 방식의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크기와 분포의 표집들에 대해 모형적합도 지수들의 민감도를 평가한 후 전통적인 모형적합도보다 엄격한 적합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CFI와 TLI는 .95에 가깝거나 높고, SRMR은 .08에 가깝거나 낮으며, RMSEA는 .06에 가깝거나 낮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하였다. Hu와 Bentler의 적합도 지수는 점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최적의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적합도 기준을 사용하였다.

결 과

사전분석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인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해 5개의 잠재변인들에 각각 3개의 측정(관찰)변인들을 구성하였다. 각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표 1과 같은데 불안에착과 회피에착 꾸러미들 간의 상관계수들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Shapiro-Wilk 정상분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다수의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검증을 위한 추론평정법으로 위의 자료분석에 언급한 MLM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가설 모형의 검증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Byrne, 2006) 첫 단계는 측정모형 검증으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면 다음 단계인 구조모형 검증으로 넘어간다. 본 연구 표집에 대한 측정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MLM\chi^2(80) = 116.80, p < .01$; CFI=.99; TLI=.99; SRMR=.029; RMSEA=.034 (90% 신뢰구간:.019~.047).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경로계수(표 2 참고)와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표 3 참고)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1. 속절변인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40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M | SD |
|-----------------|---|-------------------|-------------------|-------------------|-------------------|-------------------|-------------------|-------------------|-------------------|--------------------|--------------------|--------------------|--------------------|--------------------|--------------------|------|------|
| 모 정서유대 | | | | | | | | | | | | | | | | | |
| 1. 모 정서유대 1 | - | .78 ^{**} | .79 ^{**} | .25 ^{**} | .23 ^{**} | .22 ^{**} | .13 ^{**} | .22 ^{**} | .16 ^{**} | -.15 ^{**} | -.13 ^{**} | -.16 ^{**} | -.19 ^{**} | -.23 ^{**} | -.18 ^{**} | 2.51 | .66 |
| 2. 모 정서유대 2 | | - | .83 ^{**} | .31 ^{**} | .30 ^{**} | .29 ^{**} | .20 ^{**} | .21 ^{**} | .19 ^{**} | -.25 ^{**} | -.22 ^{**} | -.25 ^{**} | -.21 ^{**} | -.25 ^{**} | -.17 ^{**} | 2.33 | .72 |
| 3. 모 정서유대 3 | | | - | .27 ^{**} | .24 ^{**} | .27 ^{**} | .18 ^{**} | .24 ^{**} | .20 ^{**} | -.17 ^{**} | -.19 ^{**} | -.19 ^{**} | -.19 ^{**} | -.23 ^{**} | -.18 ^{**} | 2.30 | .71 |
| 자기 존중감 | | | | | | | | | | | | | | | | | |
| 4. 자존감 1 | | | | - | .81 ^{**} | .80 ^{**} | .25 ^{**} | .30 ^{**} | .28 ^{**} | -.35 ^{**} | -.40 ^{**} | -.42 ^{**} | -.21 ^{**} | -.25 ^{**} | -.19 ^{**} | 3.16 | .63 |
| 5. 자존감 2 | | | | | - | .76 ^{**} | .25 ^{**} | .32 ^{**} | .27 ^{**} | -.32 ^{**} | -.37 ^{**} | -.39 ^{**} | -.13 ^{**} | -.16 ^{**} | -.12 ^{**} | 3.31 | .61 |
| 6. 자존감 3 | | | | | | - | .30 ^{**} | .33 ^{**} | .32 ^{**} | -.37 ^{**} | -.39 ^{**} | -.43 ^{**} | -.23 ^{**} | -.27 ^{**} | -.22 ^{**} | 3.09 | .61 |
| 타인 신뢰성 | | | | | | | | | | | | | | | | | |
| 7. 타인 신뢰 1 | | | | | | | - | .68 ^{**} | .63 ^{**} | -.27 ^{**} | -.25 ^{**} | -.29 ^{**} | -.30 ^{**} | -.29 ^{**} | -.25 ^{**} | 2.97 | .90 |
| 8. 타인 신뢰 2 | | | | | | | | - | .70 ^{**} | -.26 ^{**} | -.23 ^{**} | -.29 ^{**} | -.23 ^{**} | -.25 ^{**} | -.22 ^{**} | 3.57 | .76 |
| 9. 타인 신뢰 3 | | | | | | | | | - | -.21 ^{**} | -.18 ^{**} | -.25 ^{**} | -.23 ^{**} | -.22 ^{**} | -.21 ^{**} | 3.44 | .83 |
| 불안 성인 애착 | | | | | | | | | | | | | | | | | |
| 10. 불안 애착 1 | | | | | | | | | - | .82 ^{**} | .84 ^{**} | .16 ^{**} | .16 ^{**} | .21 ^{**} | .09 | 3.83 | 1.24 |
| 11. 불안 애착 2 | | | | | | | | | | - | .80 ^{**} | .08 | .08 | .17 ^{**} | .05 | 4.00 | 1.26 |
| 12. 불안 애착 3 | | | | | | | | | | | - | .16 ^{**} | .16 ^{**} | .21 ^{**} | .11 [*] | 3.60 | 1.21 |
| 회피 성인 애착 | | | | | | | | | | | | | | | | | |
| 13. 회피 애착 1 | | | | | | | | | | | | - | .86 ^{**} | .84 ^{**} | .84 ^{**} | 3.07 | 1.23 |
| 14. 회피 애착 2 | | | | | | | | | | | | | - | .83 ^{**} | .83 ^{**} | 3.26 | 1.31 |
| 15. 회피 애착 3 | | | | | | | | | | | | | | - | .89 ^{**} | 2.96 | 1.25 |

*p < .05 **p < .01

표 2.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경로와 표준오차 (N=401)

| 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 표준화된 경로계수 | 표준오차 | 표준오차 평정값 | 양방향 p값 |
|-------------|-----------|------|----------|--------|
| 모 정서유대 | | | | |
| 모 정서유대 1 | .861 | .019 | 45.935 | .000 |
| 모 정서유대 2 | .907 | .015 | 61.377 | .000 |
| 모 정서유대 3 | .915 | .016 | 56.750 | .000 |
| 자기 존중감 | | | | |
| 자존감 1 | .920 | .014 | 65.002 | .000 |
| 자존감 2 | .877 | .019 | 46.280 | .000 |
| 자존감 3 | .867 | .017 | 51.836 | .000 |
| 타인 신뢰성 | | | | |
| 타인 신뢰 1 | .784 | .032 | 24.695 | .000 |
| 타인 신뢰 2 | .868 | .027 | 31.773 | .000 |
| 타인 신뢰 3 | .803 | .024 | 32.965 | .000 |
| 불안 성인 애착 | | | | |
| 불안 애착 1 | .918 | .011 | 80.151 | .000 |
| 불안 애착 2 | .887 | .012 | 72.050 | .000 |
| 불안 애착 3 | .912 | .012 | 78.717 | .000 |
| 회피 성인 애착 | | | | |
| 회피 애착 1 | .936 | .010 | 90.728 | .000 |
| 회피 애착 2 | .923 | .011 | 83.356 | .000 |
| 회피 애착 3 | .897 | .013 | 69.156 | .000 |

표 3. 측정모형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401)

| | 1 | 2 | 3 | 4 | 5 |
|------------|---|-------|-------|--------|--------|
| 1. 모 정서유대 | - | .34** | .26** | -.24** | -.25** |
| 2. 자기 존중감 | | - | .39** | -.47** | -.24** |
| 3. 타인 신뢰성 | | | - | -.34** | -.32** |
| 4. 불안 성인애착 | | | | - | .18** |
| 5. 회피 성인애착 | | | | | - |

**p < .0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구조모형인 자기존중감과 타인 신뢰가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돌봄과 성인기의 불안 및 회피 애착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 경로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수집된 자료를 더 잘 반영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를 통해서만 불안 및 회피 애착을 예측하는 완전매개 모형은 아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MLM\chi^2(82)=125.40, p < .01$; CFI=.99; TLI=.99; SRMR=.042; RMSEA =

.036(90% 신뢰구간:.023-.049). 다음으로,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각각 직접 예측하는 경로가 완전매개 모형에 첨가된 부분매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또한 아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MLM\chi^2(80)=116.80, p < .01$; CFI=.99; TLI=.99; SRMR=.029; RMSEA = .034(90% 신뢰구간:.019-.047).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를 MLM 평정을 위한 교정공식($MLM\chi^2$ 차이 값은 두 모형의 χ^2 값 차이로 계산되지 않고 엄격한 평정을 위해 구성된 공식에 의해 재산출되는데 www.statmodel.com 참고)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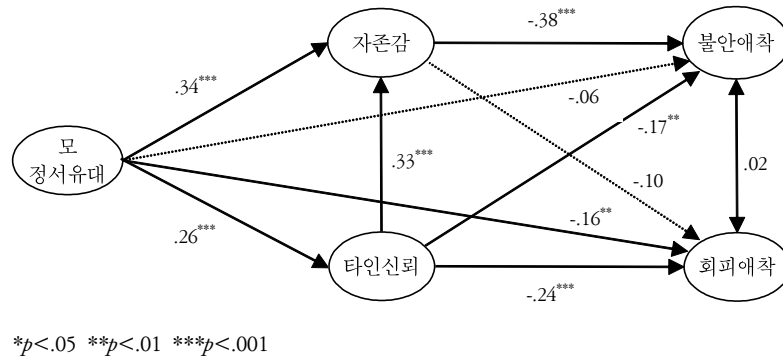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가설 최종 구조모형

표 4. 최종 모형내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 검증

| 경로 | 총 간접효과 | 개별 간접효과 |
|------------------------|----------|----------|
| 모 정서유대 → 불안 애착 | -.174*** | |
| 모 정서유대 → 자존감 → 불안 애착 | | -.129*** |
| 모 정서유대 → 타인 신뢰 → 불안 애착 | | -.045* |
| 모 돌봄 → 회피 애착 | -.094** | |
| 모 정서유대 → 자존감 → 회피 애착 | | -.033 |
| 모 정서유대 → 타인 신뢰 → 회피 애착 | | -.062** |

* $p < .05$ ** $p < .01$ *** $p < .001$

하여 산출하였는데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았다; $\Delta MLM \chi^2(2)=8.05(p<.05)$. 따라서 부분매개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는데 최종 모형의 잠재변인들 간에 나타난 경로 및 상관 계수들은 그림 2에서와 같다. 한편, 최종 모형에서 예측변인(모의 정서적 돌봄)과 두 매개변인(자존감, 타인 신뢰)은 두 준거변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총 변량의 25%와 14%를 각각 설명하였다. 한편, 구조 모형내의 존재하는 4개의 매개 경로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은데 모와의 정서적 유대에서 자존감을 통해 회피 애착으로 가는 매개 경로를 제외한 3개의 매개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을 통해 성인기의 애착관계 방식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 지역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은 각각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와 성인기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방식인 불안애착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만이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회피애착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적 제안과 Bartholomew의 개념적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많이 경험한 대학생일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렇게 높은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거절이나 방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자기 존중감은 아님)와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회피애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공감 및 애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의도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1969/1982, 1973, 1977)와 Ainsworth(1982)의 제안과 일치할 뿐 아니라 본 연구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또한 다양한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예, 불안, 우울, 섭식장애)을 예측하는 핵심 변인들 중의 하나로 밝혀진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은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애정과 정서적 지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 보고들(예, Allen, 2001; Han, 2010; Shore, 2001; 한기백, 2013)과도 일치한다.

둘째, 자신을 소중하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고 믿고 신뢰할수록 대인관계 장면에서 거절과 방임에 대한 불안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의 가설과 일치할 뿐 아니라 Bowlby(1973, 1980)를 비롯한 여러 애착연구자들의 보고(예, 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Mikulincer & Shaver, 2007; 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와도 일치하는데 성인기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인 불안애착 행동 방식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적 표상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자기 존중감은 성인기의 회피애착 행동 방식을 예측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 구조모형에는 회피애착을 경쟁적으로 예측하는 3개의 변인들이 존재하는데 자존감은 다른 두 변인인 타인신뢰와 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비해 고유하게(공변량을 제외한) 회피애착을 설명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나오지 않은 것이지 자존감과 회피애착 간에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존감과 회피애착 간에는 $-.24$ ($p < .01$)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존재한다.

셋째, Bowlby의 이론적 제안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게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안정된 정서적 유대는 자신의 존재 가치감과 함께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안애착 행동 방식을 예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 대해 불편해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관계경향인 회피애착을 예방하는 심리적 경로는 불안애착을 예측하는 경로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체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자기 존중감은 아님) 회피애착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회피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상이하지만 Bartholomew와 동료들(Bartholomew, 1990, 1993; Griffin & Bartholomew, 1994)이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을 자기 존중감(불안애착)과 타인 신뢰(회피 애착)라는 두 축의 상호작용적 관계의 틀로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Bartholomew와 동료들에 따르면 내적 작동모델 또는 정신적 표상은 자기(self)와 타인(others)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애착 또는 회피애착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행동 경향을 보이는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높지만 타인을 신뢰하지 않기에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행동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본 연구의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안애착은 타인신뢰보다는 자존감에 의해 훨씬 강하게 예측되는 반면, 회피애착은 자존감보다는 타인신뢰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예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성인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역기능적 대인관계 방식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행동 방식의 이면에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돌봄의 결핍이나 정서적 지지의 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애착관계 방식은 내적작동모델

을 통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포함한 평생의 발달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1973)와 Ainsworth(198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자 본 연구의 가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예, 권선구, 2013; Grossmann, Grossmann, Kindler, & Zimmermann, 2008; Hazan & Shaver, 1987; 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 결과와도 유사한데 예를 들어, 권선구(2013)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예, 배우자, 연인)에서 보이는 불안 및 회피 애착관계 방식은 아동기에 부모와 관계에서 경험한 방임이나 거절과 관계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 결과들의 발달적, 임상적,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조절 문제들을 예측하는 주요 심리사회적 변인들 중의 하나로 알려진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방식인 불안과 회피 애착 방식은 낮은 자기 존중감 또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자기성장과 발달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중간 발달단계인 이른바 부상하는 성인기(emerging adulthood, Arnett, 2000, 2004)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안정된 직업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친밀한 대인관계 및 결혼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성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대인관계 문제는 이 발달 시기에 가장 빈번히 보고되는 어려움들 중의 하나인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행동 방식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그러한 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들을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 시기의 자기 이해와 성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밀한 대인관계 행동 방식을 살펴봄에 있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아동기에 경험한 주 양육자와의 관계 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 또한 자기 정체감을 탐색하고 명료화해가는 대학생 시기(장휘숙, 2000a,b, Arnett, 2000; Erikson, 1968)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현재의 대인관계 행동 방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은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것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상하는 성인기에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기 성찰을 통해 관계 방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을 점검함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발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및 현재의 대인관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은 부부 또는 연인 상담이나 부모-자녀 관계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 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또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독립적인 관계 패턴을 보이는 개인의 경우,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습득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함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체득된 의사소통 방식과 정신적 표상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성인기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옥정, 방희정, 2012; Belsky, 2005;

Bowlby, 1973; Obegi, Morrison, & Shaver, 2004).

이상에서 언급한 의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제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회상적 기억과 변인들 간의 상관에 기초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관계는 회상에 근거하여 측정되었기에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기보다는 참여자의 주관적인 회상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통해 성인애착 행동 방식을 예측하는 경로는 본질적으로 상관적이지 인과적이지 않다. 인과적 관계란 변인들을 측정할 시점들 간에 시간적 차이가 명백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Shadish, Cook, & Campbell, 2001).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표상을 통해 성인기의 애착관계에 미치는 경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의 전 지역의 대학생이나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애착이론은 동물행동학과 진화론에 근거하여 다문화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구성되었기에 문화적, 인종적, 지역적, 계층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지도 아직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국 내의 타 지역은 물론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가설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 보고식 척도들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

에게 솔직한 응답을 요청하였지만 참가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응답했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 했는지를 점검하는 도구를 본 연구에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응답 편향성을 측정하는 도구(예,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민감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참가자의 편향적인 응답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자기보고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 3자(예, 가족, 친구)의 관점도 포함시킴으로써 참가자들이 한 응답들의 사실 여부를 다른 관점에서 확인해 봄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owlby를 중심으로 한 애착연구자들이 제안한 아동기의 주 양육자인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성향을 통해 성인기의 불안 및 회피 애착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경험적 자료에 의해 새롭게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선구 (2013). 중학교 담임교사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교사-학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 22(3), 605-630.
- 김창숙 (201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옥정, 방희정 (2012). 아버지 애착의 세대 간 전이: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45-65.
- 장휘숙 (2000a).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장휘숙 (2000b).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II):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41-157.
- 최정아, 이혜은 (2008).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 한기백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 애착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065-3087.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s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3-30). New York: Basic Books.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1), 49-67.
- Allen, J. G. (2001). *Traumatic relationships and serious mental disorders*. New York: John Wiley & Sons.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1993). From childhood to adult relationship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S. W. Duck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2: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pp. 30-62). London: Sage.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lsky, J. (2005). The developmental and evolutionary psychology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In C. S. Carter, L. Ahnert, K. E. Grossman, S. B. Hardy, M. E. Lamb, S. W. Porges, & N. Sachser (Eds.), *Attachment and bonding: A new synthesis* (pp. 169-198).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NY: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NY:

-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Shaver, P. R., & Clark, C. A. (2000). *Specifying some mediators of attachment-related anxiety and avoidance*.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rockport.
- Byrne, B. M. (200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EQ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yrne, B. M.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Y: Routledge.
- Campos, R. C., Besser, A., & Blatt, S. J. (2010).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and dependency in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ptions of maternal caring and depressive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27, 1149-1157.
- Cannon, W. B. (1939). *The wisdom of the body* (2nd Ed.). New York: Simon.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 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17-52.
- Grossmann, K., Grossmann, K., Kindler, H., & Zimmermann, P. (2008). A wider view of attachment and exploration: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security from infancy to young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NY: Guilford.
- Han, G. (2010). *Adult attachment patterns, mental representation of self, and faith: Mediators of childhood trauma and affect-behavior regulations in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as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lman, T. B., Galbraith, R. C., Timmons, N. M., Steed, A. & Tobler, S. B. (2009). Threats to parental and romantic attachment figures's availability and adult attachment insecurity.

- Journal of Family Issues*, 30(3), 413-42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ikulincer, M., Doleve, T., & Shaver, P. R. (2004).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during thought suppression: Ironic rebounds and vulnerable self-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940-95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Press.
- Muthen, L. K., & Muthen, B. O. (2010). *Mplus user's guide* (6th Ed.). Los Angeles, CA: Authors.
- Obegi, J. H., Morrison, T. L., & Shaver, P. R. (2004). Explor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style in young female adult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21(5), 625-638.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1), 1-10.
- Riggs, S. A., & Han, G. (2009). Predictor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 39-5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sier, J., Stadelhofen, F. M., & Berthoud, S. (2004). The hierarchical structures of NEO-PI-R and the 16PF5.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0(1), 27-38.
- Russell, D. W., Kahn, J.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chore, A. N. (2001). Dysregulation of the right brain: A fundamental mechanism of traumatic attachment and the psychopathogene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 9-30.
- Shadish, W. R., Cook, T. D., & Campbell, D. T. (2001).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Generalized causal inference*. Stamford, CT: Cengage Learning.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 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487-498.
- Waters, E., Merrick, S., Treboux, D., Crowell, J., & Albersheim, L.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3),

- 684-689.
- Wei, M., Mallinckrodt, B., Larson, L. M.,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depressive symptoms, and validation from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68-377.
- Wright, M. O., Crawford, E., & Castillo, D. C.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33(1), 59-68.

1차 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3. 08.

최종게재결정 : 2014. 03. 10.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and Adult Attachment: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GiBaeg Ha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athways in which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s predicts adulthood attachment through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Participants were 401 college students in the southwest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and anxious attachment. In contrast, trust in othe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bonding and avoidant attachment. These findings confirm Bowlby's proposition and Bartholomew's conceptualization of working model, and suggest that those who received more affection from their mother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valuable and to trust others. Furthermore, those who view themselves as valuable and trust others were less likely to show anxious attachment styles (i.e., overly dependent on others). Besides, trust in others an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were predictors of avoidant attachment (i.e., compulsively self-reliant).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clin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self-esteem, trust, adult attachment